

후두암환자에 대한 이중 동맥혈류 공급에 의한 유리공장 이식술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김재현 · 이해원 · 백희중 · 박종호

Introduction

후두암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전후두절제술 후 유리공장이식술은 좁은 해부학적 위치로 이식편이 놓리거나 혈관이 꺾이는 일이 많고 또한 고용량의 방사선치료 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혈류공급은 유리공장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단일 동맥혈류에 의한 유리공장 이식술에 비해 이중 동맥혈류 공급은 수술 후 보다 안정적 혈류 공급으로 이식편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ethods

본원에서 2009년 3명의 후두암 환자에게 이중 동맥혈류법에 의한 유리공장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들 모두 70Gy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리공장의 정맥은 내경정맥에 단-측 문합 후 동맥혈류 연결은 유리공장의 장간막 주동맥을 총경동맥에 단-측 문합, 유리공장의 다른 장간막 동맥을 감상선 동맥에 단-단 문합하여 시술하였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경비내시경으로

이식편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술 후 식도조영술을 확인하였다.

Results

수술 중 유리공장의 총 허혈시간은 세 명 모두 40분 미만이었으며 수술 후 세 명의 환자들의 경비내시경상 이식편의 혈류 상태는 양호하였다. 수술후 일주일째 시행한 식도조영술에서 환자 한명의 근위부 문합부위의 누출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장에서 확인하였으나 이식편의 괴사소견은 없이 봉합부위 사이로 누출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열흘뒤 시행한 식도조영술에서 누출 소견은 없었다.

Conclusions

후두암환자의 유리공장이식술 시행시 이중 동맥혈류 공급은 이식편의 안정적인 혈류공급을 유지하여 고용량 방사선 치료의 과거력이 있거나 유리공장의 혈류공급이 불안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